

인터뷰 / 한승일 인천 서구의회 의장

# “인천 서구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구현”

“인구와 면적이 인천 최대 구인 서구의 위상에 걸맞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변자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끊임없이 달려온 시간이 벌써 100일을 맞았습니다”

한승일 서구의회 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구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성장동력을 지니고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의회도 이같은 기회의 땅인 서구발전의 한 축으로 책임을 다해 구민의 대변자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전념 하겠다”고 다짐했다.

산을 사랑하는 산 사나이라는 별명처럼 털털하고 편안한 인상의 한승일 의장.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본인을 주민의 대표로 선출해 주신 주민의 뜻을 헤아려 현명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구민과 소통했다는 100일의 소회를 들어본다.

-제9대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제9대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것이 수일 전의 일로 기억되는데 벌써 100일의 시간이 흘렀다.

취임 이후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와 여소야대 상황에서 원구성을 위한 협치 등 숨 가쁜 시간이었다. 3개월 조금 넘는 기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2년이라는 전반기 임기를 생각하면 초심을 다시 다지며 정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9대 서구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 방향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구현에 힘쓰겠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40cm 남짓한 거리의 여행이라고 한다.

구민에게 의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구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제대로 녹여내기 위해서는 좀 더 친숙한 의회를 만드는 것이다.

9대 서구의회는 재선 이상 의원이 4명, 전체의 80%인 16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구민 복지향상과 수준 높은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의정연수를 통한 예산안 심의 및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를 지원해줄 정책지원관(현 4명)의 추가 채용을 통해 10명까지 확대하고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 활성화에도 전격하겠다.

의회 내 북카페 형식의 ‘의정도서관’ 설립을 통해 구민들이 편안하게 찾아 의회와의 거리를 좁혀 지역의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구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반영해 준비하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장으로서는 책임감이 클 거 같은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조직이나 예산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제한적인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의회들과 소통하면서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 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

서구의회는 28명의 사무국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내년에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 등 조직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의장으로서 격식이나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소통을 강조하고 직원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해서 서구의회 의원들이 구민 복리증진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



이 있다면.

9대 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열린다. 16명의 초선의원이 3개월 조금 넘는 기간에 구정 전반에 관한 파악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의원들께서 회기 기간이 아님에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구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돌담을 쌓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동근 돌만으로는 견고한 담을 쌓을 수 없다. 모난 돌들이 돌 틈에 채워져야 서

로 맞물려 튼튼한 담이 만들어진다. 비록 구민을 위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발언 일지라도 모난 돌 취급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오직 구민을 바라보고 본인을 주민의 대표로 선출해 주신 주민의 뜻을 헤아려 현명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서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며, 분구라는 화두가

제기된 것처럼 58만에서 몇 년 후면 80만 대도시로 변모하게 된다.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서구에서 살아가는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서구의회 20명의 의원들이 처음 가졌던 결심, 그리고 다짐과 각오를 잊지 않고, 4년 동안 앞장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중삼 기자

## 국민의힘·민주당 상대 당 대표 공격에 ‘집중’

### 민주당, 정진석 징계안 제출 “순직 선열 정신 훼손 발언”

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대한독립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되신 순직 선열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SNS 글 중 ‘조선 왕조는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정한 적 없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는 내용은 반민족적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품위유지’를 명시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촉구했다.

또 오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과 대민 임시정부 적통 계승한다고 명시되었다”며 “(정진석 의원의) 망언이 일본 제국주의 당시 우리 역사 조작했던 식민사관 담긴 언어 그 자체라 판단했고, 또한 이 제국주의 침략 역사 정당화하는 일본 극우세력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약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국회법 제25조 품위



민주당 전용기·오영환 의원이 13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현저하게 위반했기에 국회법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 요구한다고 적시한 징계안을 이날 오후 경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어 오 대변인은 “공부 좀 계속하라는 식의 말하는 것은 정진석 위원장 반성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 본다”며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자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 서문시장 상인연

합회 간담회에 참석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당당한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친일 얘기는 시대착오적 철지난 발상”이라며 “감히 일본이 우리를 주둔하고 옥 일기를 날리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흑세무민이다”라고 반박했다.

홍정윤 기자



정동혁 국민의힘 대변인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 관련 주식을 보유했음에도 국회 국방위원회를 자처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대표가 방위산업 관련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드러나지 않았으면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1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브리핑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재명

당 대표가 해군 함정 납품과 관련된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2억3125만원에 취득했고 현 보유가는 2억820여 만원으로 추정된다”며 “해군 함정 납품을 하는 방산업체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국방위원회임을 언급하며 “이 대표는 국회에 입성한 이후 상임위 지망 1순위를 국방위로 정했고 국방위원이 됐다. 거대한 방산 주식을 보유한 원내 1당의 당수가 국방위에

### 국민의힘, 이재명 윤리위 제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장해

들어가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라며 이해충돌방지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13일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오해를 불식하겠다”며 관련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양급의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직자윤리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 이전에 매입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성립될 수 없다.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에 배정되었을 때 바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했어야 했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평소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스스로 피력했던 이 대표였다”며 “대선 패배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투자를 쉬지 않았다는 것도 놀랍지만 국회의원 당선 후 의정활동과 투자를 연결시킨 것에 다시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 대표를 비꼬았다.

홍정윤 기자

##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본격 활동

### 연구단체 17개 등록 승인 전공 살린 연구주제 ‘눈길’

다양한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천시의회는 내년에 활동할 총 17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을 최근 승인·통보했다.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들에게는 시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연구단체는 소속 정당 및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연구과제에 관심이 있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별 총 3개 단체까지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이번에 등록·승인된 의원연구단체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달 4일 개최된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에서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및 의견진술 등의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내년 1년간 활동할 의원연구단체에 참여하는 시의원은 총 34명으로 전체 시의원(40명)의 85%를 차지하는 등 정책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참여 의지가 적극적이다.

특히 연구과제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가 등록돼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이 연구·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3건, 문화복지위원회 5건, 산업경제위원회 4건, 건설교통위원회 4건, 교육위원회 1건 등이다.

앞으로 각 연구단체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현지 조사 및 자료수집,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 내년 11월까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며, 이 연구 결과는 의원입법 등 의정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안중삼 기자



다양한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